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지난 4월28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국회의원 40명 공동발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은 5월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에서 1천3백여명의 인쇄인이 참석하여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그 후 이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및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친 후 9월20일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상정된 바 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은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제2차 공청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공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위원장이 주관하는 공청회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공술인과 반대하는 공술인이 함께 참석하여 열띤 찬반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이유로 햇빛을 보지 못한 법률안도 술하게 많은게 현실이다.

공청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관문을 넘어 선다고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문광위 여야 간사가 상정에 합의해야 문광위 소위원회로 넘겨지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에야 문광위 전체회의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다.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은 다시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소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어야 하며 법사위 승인을 거친 후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어야만 국회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숨가쁘게 겪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이와함께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회의 움직임도 법률안 진행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내용이 좋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외면한다면 법률제정은 불가능한 과제일 뿐이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인쇄인 모두가 선이 닿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열의를 보여야 하며 힘을 합해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일이 아닌 전체 인쇄업계의 공동과제이므로 한지붕에서 두 목소리가 난다든가 본의 아니게 태클을 거는 결과는 인쇄인 모두에게 피해만 주게 될 것이다. 법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단독법률이 제정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이 실패(?)하게 되면 인쇄업계가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추진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오세익 편집주간